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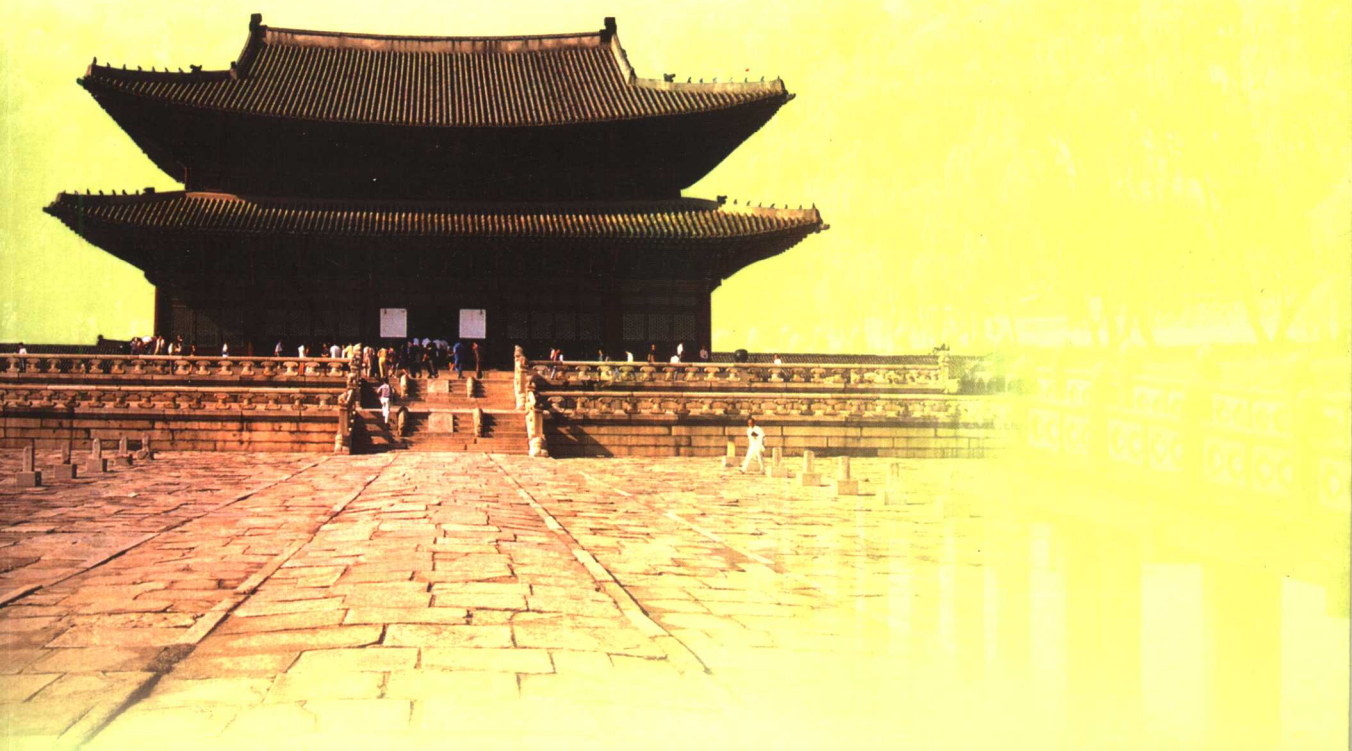
韩国韩国学中央研究院科研基金项目

# 进阶韩国语

## 高级篇

고급 한국어

[中] 何彤梅 主编 [韩] 李珖镐 监修



世界图书出版公司

韩国韩国学中央研究院科研基金项目  
大连外国语学院教材基金项目

# 进阶韩国语

## 高级篇

고급 한국어



主 编：何彤梅

副主编：朴善姬 李玉华 林从纲

鱼江石 [韩]

监 修：李珖镐 [韩]



世界图书出版公司

北京 · 广州 · 上海 · 西安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进阶韩国语·高级篇/何彤梅主编. —北京: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2006.6

ISBN 7-5062-8024-8

I. 进... II. 何... III. 朝鲜语-教材 IV. 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6)第 043491 号

**进阶韩国语·高级篇**

---

**主 编:** 何彤梅

**副 主 编:** 朴善姬 李玉华 林从纲 鱼江石[韩]

**监 修:** 李珣镐[韩]

**责任编辑:** 韩美玲

**装帧设计:** 春天工作室

---

**出 版:**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发 行:**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地址: 北京朝内大街 137 号 邮编: 100010 电话: 64077922)

**销 售:** 各地新华书店和外文书店

**印 刷:** 北京世图印刷厂

---

**开 本:** 787×1092 1/16

**印 张:** 12

**字 数:** 200 千

**版 次:** 2006 年 6 月第 1 版 2006 年 6 月第 1 次印刷

---

ISBN 7-5062-8024-8/H·910

定价: 20.00 元

---

版权所有 翻印必究

## 作者简介

➡ **何彤梅** 大连外国语学院韩国语系主任，大连外国语学院韩国语研究所所长，长期从事韩国语教学和研究工作，出版《中国—朝鲜·韩国关系史》(上下卷)、《实用韩国语会话》等，发表论文多篇。

➡ **李珖镐** [韩] 文学博士，教授，韩国学中央研究院副院长，研究方向为韩国语语法。

➡ **朴善姬** 大连外国语学院韩国语系副教授，从事韩国语教学和研究工作多年，教学经验丰富，出版《韩国语基础语法与练习》等，发表论文多篇。

➡ **李玉华** 大连外国语学院讲师，韩国语教学研究工作经验丰富，发表论文多篇。

➡ **林从纲** 教授，曾任大连外国语学院韩国语系主任。主要著作有《外贸韩国语》、《全国导游人员资格等级考试复习大纲（朝鲜语卷）》、《全国导游人员资格等级考试系列教材（朝鲜语卷）》、《市民外语会话（韩国语）》、《韩国语词汇学》等，发表论文多篇。

➡ **鱼江石** [韩] 毕业于韩国学中央研究院，获文学博士学位，研究方向为汉诗。

## 近期推出

- 《进阶韩国语（中级篇）》

大连外国语学院 何彤梅 主编

- 《韩语口语表达教程》

洛阳解放军外国语学院 [中] 张光军 [韩] 林亨载 主编

# 前 言

1992 年中韩建交后,随着两国关系的发展,学习韩语的学生日益增多,我国韩语专业教育也进入了新的历史时期。步入 21 世纪,中韩两国在各个领域的交流更加密切,社会各界对韩语人才的需求不断增加。在这种形势下,韩语教材需求也在不断增加,但适合高年级学生的教材还较少,为了解决广大高年级学生的实际困难,我们在韩国韩国学中央研究院的支持和帮助下编写了这部韩语教材。

本教材共收录了 16 篇文章,这些文章涵盖了语言、文学、文化等方面的内容,包括散文、小说、论文等。文章大多取自韩国知名作家、学者的作品或论文,具有很高的学术价值。为方便学习者使用,本教材还配有词汇表、语法解释、练习等。词汇部分包括词组这一形式,对扩大学生词汇量有很大帮助。语法部分通过语法解释,学生既能巩固低年级所学的语法知识,又可以掌握新的语法内容。练习题的编写紧紧围绕课文进行,注重理解和消化课文的内容、词汇、语法知识。此外,在练习中还穿插了与韩语过级测试有关的题型,满足了高年级学生即将面临过级考试的需求。

我们相信通过学习该教材,学生不但能够学到新的词汇和语法,还能更深刻地了解韩国文化、历史、文学、社会。

本系列教材是为韩语专业高年级学生编写的。社会上具有韩语中级能力的韩语学习者也可利用本书进一步扩大词汇量,系统全面地掌握语法知识,了解韩国文化。

编者

2006 年 3 月

이 책은 2004 년도 한국학중앙연구  
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지원에  
의해 개발되었음.

# 目 录

|       |                          |     |
|-------|--------------------------|-----|
| 제 1 과 | 불국사 기행 .....             | 1   |
| 제 2 과 | 우물 안 개구리.....            | 14  |
| 제 3 과 | 언어와 문학가 .....            | 29  |
| 제 4 과 | 넌뛰기 .....                | 41  |
| 제 5 과 | 시와 이야기가 있는 한국역사(2) ..... | 50  |
| 제 6 과 | 서편제(1) .....             | 61  |
| 제 7 과 | 대중, 대중 사회, 대중 문화 .....   | 73  |
| 제 8 과 | 연탄길 .....                | 83  |
| 제 9 과 | 소설은 왜 읽는가.....           | 93  |
| 제10과  | 소나기 .....                | 104 |
| 제11과  | 국어의 음운변화 .....           | 117 |
| 제12과  | 동화와 무의식 .....            | 129 |
| 제13과  | 만해 한용운 .....             | 139 |
| 제14과  | 홍부와 놀부 .....             | 150 |
| 제15과  | 사회 변동과 문화 변동 .....       | 159 |
| 제16과  | 서편제(2) .....             | 170 |

## 제 1 과

### 불국사 기행

현진건

7월 12일, 아침 첫차로 경주(慶州)를 떠나 불국사(佛國寺)로 향했다. 떠날 임시에 봉황대(鳳凰臺)에 올랐건만 잔뜩 찌푸린 일기에 짙은 안개는 나의 눈까지 흐리고 말았다. 시포(尸布)를 널어 놓은 듯한 회미한 강줄기, 몽롱한 무덤의 봉우리, 쓰러질 듯한 초가집 추녀가 눈물겹다. 어젯밤에 나를 부여잡고 울던 옛 서울은 오늘 아침에도 눈물을 거두지 않은 듯. 그렇지 않아도 구슬픈 내 가슴이어든 심란한 이 정경에 어찌 견디랴? 지금 떠나면 1년, 10년, 혹은 20년 후에나 다시 만날지 말지! 기약 없는 이 작별을 앞두고 눈물에 젖은 임의 얼굴! 내 옷소매가 축축이 젖음은 안개가 녹아 내린 탓만은 아니리라.

장난감 기차는 반 시간이 못 되어 불국사역까지 실어다 주고 역에서 등대(等待)했던 자동차는 십릿길을 단숨에 경청경청 뛰어서 불국사에 대었다. 뒤로 토함산(吐含山)을 등지고 왼편으로 울창한 송림을 끌며 앞으로 광활한 평야를 내다보는 절의 위치부터 풍수쟁이 아닌 나의 눈에도 벌써 범상치 아니했다. 더구나 돌 층층대를 쳐다볼 때에 그 굉장한 규모와 섬세한 솜씨에 눈이 어렸다.

초창(初創) 당시엔 낭떠러지로 있던 곳을 돌로 쌓아올리고, 그리고 이 돌 층층대를 지었음이라. 동쪽과 서쪽으로 갈리어 위아래로 각각 둘씩이니 전부는 네 개인데 한 개의 층층대가 대개 열일곱여덟 계단이요, 길이는 57~8척으로 양가에 놓인 것과 가운데 뻗힌 놈은 돌 한 개로 되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인력을 들인 것인가를 짐작할 것이요, 오늘날 돌로 지은 대건축물에도 이렇듯이 대패로 민 듯한 돌은 못 보았다 하면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돌을 곱게 다루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돌 층층대의 이름은, 동쪽 아래의 것은 청운교(靑雲橋), 위의 것은 백운교(白雲橋)요, 서쪽 아래의 것은 연화교(蓮花橋), 위의 것은 칠보교(七寶橋)라 한다. 층층대라 하였지만 아래와 위가 연락되는 곳마다 요새 말로 네모난 발코니가 되고 그 밑은 아치가 되었는데, 인도자의 설명을 들으면 옛날에는 오늘날의 잔디밭 자리에 깊은 연못을 파고, 아치 밑은 맑은 물이 흐르며 화선(畵船)이 드나들었다 하니 돌 층층대를 다리라 한 옛 이름의 유래를 터득할 것이다.

층층대 상하에는 손잡이 돌이 우뚝우뚝 서고 쇠사슬인지 은사슬인지 둘러 켜 흔적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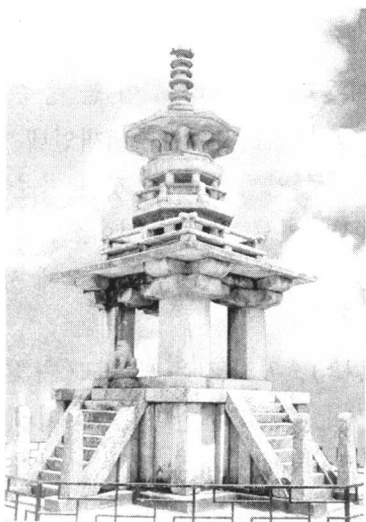


▲ 돌층층대

직도 남았다. 귀인이 이 절을 찾을 때엔 저 편 못가에 내려 그림배를 타고 들어와 다시 보교(步橋)를 타고 이 돌 층층대를 지나 절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단다. 너른 못에 연꽃이 만발한데 다리 밑으로 돌아드는 맑은 흐름엔 으리으리한 누각(樓閣)과 석불의 그림자가 용의 모양을 그리고 그 위로 소리 없이 떠나가는 그림배! 나는 당년의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스스로 황홀하였다. 활동 사진에서 본 물의 도시 베니스의 달빛긴 바닷

가에 그림배를 저어 가는 청춘 남녀의 광경이 선하게 나타난다.

이 돌 층층대를 거치어 문루(門樓)를 지나 서니, 유명한 다보탑(多寶塔)과 석가탑(釋迦塔)이 눈 앞에 나타난다. 이 두 탑은 물론 돌로 된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만져 보아도 돌이요, 두들겨 보아도 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석가탑은 오히려 그만둘지라도 다보탑이 돌로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하여도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연한 나무가 아니요, 물씬물씬한 밀가루 반죽이 아니고 육중하고 단단한 돌을 가지고 저다지도 곱고 어여쁘고 의젓하고 아름답고 빼어나고 공교롭게 잔손질을 할 수 있으랴. 만일 그 탑을 만든 원료가 정말 돌이라면 신라 사람은 돌을 돌같이 쓰지 않고 마치 콩고물이나 팔고물처럼 마음대로 뜻대로 손가락 끝에 휘젓고 주무르고 하는 신통력을 가졌던 것이다. 귀신조차 놀래고 울리는 재주란 것은 이런 솜씨를 두고 이름이리라.



▲ 다보탑



▲ 석가탑

탑의 네 면엔 자그마한 어여쁜 층층대가 있고, 그 층층대를 올라서니 가운데는 위층을 떠받치는 중심 기둥이 있고 네 귀에도 병풍을 겹쳐 놓은 듯한 돌기둥이 또한 섰는데, 그 기둥과 두 층대의 석반(石盤)을 받은 어름에는 나무로도 오히려 깎아 내기가 어려울 만한 소로(小櫺)가 튼튼하게 아름답게 손바닥을 벌리었다. 지붕 위에 이중의 네모난 돌 난간이 둘러 쟁반 같은 이층 지붕을 받들었고, 그 위엔 8 모난 돌 난간과 세상에도 진기한 꽃잎 모양을 수놓은 듯한 돌쟁반이 탑의 8 모 난간을 받들었다. 석공이 기절했던 것은 물론이어나와 이런 기상천외(奇想天外)의 의장(意匠)은 또 어디서 온 것인가! 바람과 비에 시달린 지 천여 년을 지낸 오늘날에도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고, 이지러지지 않고, 옛 모양이 변하지 않았으니, 당대의 건축술 또한 놀랄 것이 아니냐!

들으매 이 탑의 네 귀에는 돌사자가 있었는데 두 마리는 동경 모 요리점의 손에 들어갔다 하나, 숨기고 내어놓지 않아 사실 진상을 알 길이 없고, 한 마리는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데 다시 찾아오려면 5 백만 원을 주어야 내어 놓겠다 한다던가? 소중한 물건을 소중한 줄도 모르고 함부로 굴리며, 어느 틈에 도둑을 맞았는지도 모르니, 이런 기막힐 일이 또 있느냐? 이 탑을 이룩하고 그 사자를 새긴 이의 영(靈)이 만일 있다 하면 지하에서 목을 놓아 울 것이다.

석가탑은 다보탑 서쪽에 있는데 다보탑의 혼란한 잔손질과는 판판으로, 수법이 매우 간결하나마 또한 정중한 자태를 잃지 않았다. 다보탑을 능라(綾羅)와 주옥(珠玉)으로 꾸밀 대로 꾸민 성장 미인(盛裝美人)에 견준다면, 석가탑은 수수하게 차린 담장 미인(淡妝美人)이라 할까? 높이 27 척, 층은 역시 3 층으로 한 층마다 수려한 돌병풍을 두르고, 병풍 네 귀에 병풍과 한데 어울려 놓은 기둥이 있는데 설명자의 말을 들으면 이 탑은 한 층마다 돌 하나로 되었다 하니, 그 웅장하고 거창한 규모에 놀랄 만하다.

제35 대 경덕왕(景德王)시절, 당시 재상 김대성(金大城)은 왕의 명을 받들어 토함산 아래에 불국사를 이룩할새, 나라의 힘을 기울이고 천하의 명공을 모아들였는데, 그 명공 가운데는 멀리 당나라로부터 불러내 온 젊은 석수 한 명이 있었다. 이 절의 중심으로 말하면 두 개의 석탑으로, 이 두 탑의 역사(役事)가 가장 거창하고 까다로웠던 것은 물론이다. 젊은 당나라 석수는 그 두 탑 중의 하나인 석가탑을 맡아 짓기로 되었다. 예술의 감격에 뛰는 젊은 가슴의 피는, 수륙 수 천 리 고국에 남기어 두고 온 사랑하는 아내도 잊어버리고 오직 맡은 석가탑을 완성하기에 꿇고 말았다. 침식도 잊고, 세월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는 온 마음을 오직 이 역사(役事)에 바치었다.

덧없는 세월은 어느덧 몇 해가 흘러 가고 흘러 왔다. 수만리 타국에 남편을 보내고 외로이 공궁(空閨)을 지키던 그의 아내 아사녀(阿斯女)는 동으로 흐르는 구름에 안타까운 회포를 붙이다 못하여 필경 남편을 찾아 신라로 건너오게 되었다. 머나먼 길에 피곤한 다리를 끌고 불국사 문 앞까지 찾아 왔으나, 큰 공역(工役)을 마치기도 전이요, 더러운 여인의 몸으로 신성한 절 문 안에 들어서지 못한다 하여 차디찬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절 문을 지키던 사람도 거절을 하기는 하였으되, 그 정상에 동정하였음이라. 아사녀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얼마 아니 가면 큰 못이 있는데 그 맑은 물 속에는 시방 짓는 절의 그림자가 뚜렷이 비치지니, 그대 남편이 말아 짓는 석가탑의 그림자도 응당 거기 비치리라. 그림자를 보아 역사가 끝나거든 다시 찾아오라.”

하였다.

아사녀는 그 말대로 그 못가에 가서 전심전력으로 비치는 절 모양을 들여다보며 하루바삐, 아니 한시바삐 석가탑의 그림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었다. 달빛에 흐르는 구름 조각에도 그는 몇 번이나 석가탑의 그림자로 속았으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일년 이태, 지리하고도 조마조마한 찰나 찰나를 지내는 동안 절 모양이 뚜렷이 비치고, 다보탑이 비치고 가고 오는 사람의 그림자도 비치건마는, 오직 자기 남편이 맡은 석가탑의 그림자는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멀리멀리 찾아왔다는 소식을 뒤늦게야 들은 당나라 석수는, 밤을 낮에 이어 마침내 역사를 마치고 창황히 못가로 뛰어왔건마는, 아내의 양자(樣姿)는 보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일 아무리 못 속을 들여다보아도 석가탑의 그림자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는데 실망한 그의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그만 못 가운데 몸을 던진 까닭이다. 그는 망연히 물 속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아내의 이름을 불렀으랴. 그러나 찰랑찰랑하는 물 소리만 귓가를 스칠 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슬 내리는 새벽, 달빛 솟는 저녁에도 그는 못가를 돌고 또 돌며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며 찾았다.

오늘도 못가를 돌 때, 문득 못 옆 물가에 사람의 그림자가 아련히 나타났다.

“아, 저기 있구나!”

하며 그는 이 그림자를 향해 뛰어들었다. 그러나 벌린 그의 팔 안에 안긴 것은 아내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만한 바위덩이였다. 그는 바위를 잡은 찰나에 문득 제 눈앞에 나타난 아내의 모양을 길이길이 잊지 않으려고 그 바위를 새기기 시작하였다. 제 환상(幻想)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그는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까지 천도(薦度)하려 한 것이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못 가운데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불국사 남서방에 영지(影池)란 못이 있으니 여기가 곧 아사녀와 당나라 석수가 빠져 죽은 데다. 내가 찾을 때엔 장마가 막 그친 뒤라 누런 물결이 산기슭의 소나무 가지에까지 넘실거리는데, 부처님을 새긴 천연의 돌은 지난날의 애화(哀話)를 다시금 일러 주는 듯, 그 새김의 선이 자못 섬세한 것은 부처님을 새기면서도 알뜰한 자기 아내의 환영이 머리를 지배한 탓인가?

다보탑과 석가탑에 무한한 감탄과 감개를 마지않다가 대웅전(大雄殿)을 들여다보니 정면에 엄연히 선 삼위불(三位佛)의 입상(立像)이 보통 부처님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마

는 당시의 유물은 아니고 영묘조(英廟朝) 때 개축할 때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하며, 다만 경탄할 것은 개축할 때에 천장과 벽에 올린 휘황찬란한 단청이 3 백여 년을 지난 오늘날에도 조금도 빛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슨 물감을 어떻게 풀어서 썼는지 채색학자의 연구 문제이리라.

앞길이 바쁘매 아침도 붉은 채로 석굴암(石窟庵)을 향해 또다시 걸음을 옮기었다. 여기서 십리 안팎이라니 그리 멀지 않되, 가는 길이 토함산을 굽이굽이 돌아 오르는 잣길이요, 날은 흐리어 빗발까지 오락가락하건마는, 이따금 모닥불을 담아 붓는 듯하는 햇발이 구름을 뚫고 얼굴을 내어 미는 바람에 두어 모퉁이도 못 접어들어 나는 벌써 숨이 차고 전신에 땀이 흐른다.

창울한 송림은 볼 수 없건마는 우거진 잡목 사이에 다람쥐가 넘나드는 것도 또한 버리지 못할 정취이다. 거친 상봉을 다 올라와서 동해 가에 다가앉은 치술령(鷄述嶺)을 손가락질할 때에 장렬하던 박제상(樸堤上)의 의기가 다시금 가슴을 친다. 저 치술령이야말로 박제상의 아내가 남편을 보내며 울던 곳이다. 단신 홀몸으로 적국에 들어가는 남편을 부르고 또 불렀건만, 박제상은 다만 손을 저어 보이고 의연(毅然)히 동해에 배를 띄웠다. 물과 하늘이 한데 어우러진 곳에 남편의 탄 배가 가물가물 사라질 때에 아내의 안타까운 마음은 어떠하였으리! 피눈물로 울고 울다가 그만 자빠지고 말았다. 거기서 지금에도 그 부인의 망부석(望夫石)이 그대로 남아 있어 행인의 발길을 멈춘다 하거니와, 천추에 빛나는 의기를 남기고 왜국 기시마(木島)에서 연기로 사라진 박제상의 의혼의백(義魂毅魄)은 지금 어디서 헤매는고?

끓는 물도 차다시고 모진 매도 달다시네  
살을 찢는 쇠가락도 현 새끼만 여기시네  
비수(匕首)가 살을 오려도 태연자약하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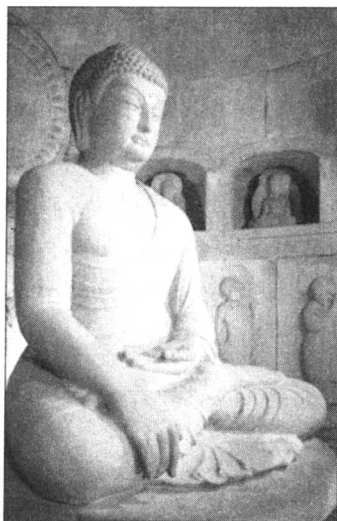
온 몸에 불이 붙어 지글지글 타오르되  
웃음 띤 환한 얼굴 봄바람이 넘노는 듯  
이 몸이 연기 되거든 고국으로 날아라.

동해에 배 뜨나니 가신 임을 어이하리  
속절없는 피눈물에 젖아지니 목숨이라  
사후에 뉘이 곧 있으면 임의 뒤를 따르리라.

치술재 뺀어난 봉을 묻어 넘은 이 빗발아  
열녀(烈女)의 남은 한을 이제도 실었느냐

나그네 소매 젖으니 눈물인가 하노라.

숨이 턱에 닿고 온 몸이 땀에 먹을 감는 한 시간 남짓의 길을 허비하여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멀리 오는 순례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石澗水)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두 구기를 들이켜매 피로도 잊고 더위도 잊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연(飄然)히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돌층대를 올라서니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仁王)과 사천왕(四天王)이 흡뜰 눈과 부르겄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훌쩍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



▲ 석굴암 본존불상

한 번 문 안으로 들어서매 석련대(石連臺) 위에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한 군데 빈 곳 없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 원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맞게 벌어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통통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미,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겠다.

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칸으로 구분되었고, 각 칸마다 보살과 나한(羅漢)의 입상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긋고 늙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신품(神品)이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리라. 더구나 뒷벽 중앙에 새긴 십일면관음보살은 더할 나위 없는 여성미(女性美)와 육체미(肉體美)까지 나타내었다. 어디까지나 아름답

고 의젓한 얼굴관은 그만두더라도, 곱고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드리운 오른 팔, 엄지와 장지 사이로 살며시 구슬 줄을 들었는데, 그 어여쁜 손가락이 곱실곱실 움직이는 듯. 병을 치키어 쥔 포동포동한 왼쪽 팔뚝! 종교 예술품으로 이렇게 곡선미를, 여성미를 영절스럽게 나타낼 수 있으랴? 그나 그뿐인가! 수없이 늘인 구슬 밑에 하늘하늘하는 옷자락은 서양 여자의 야회복을 생각나게 한다. 그 아른아른한 옷자락 밑으로 알맞게 볼록한 젖가슴, 좁은 듯하면서도 슬만한 허리를 대어 둥그스름하게 떠오른 허벅지, 토실토실한 종아리가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살아 움직인다! 그의 몸엔 분명히 맥이 뛰고 피가 흐른다. 지금이라도 선뜻 벽을 떠나 지그시 감은 눈을 뜨고 방그레 웃을 듯. 고금의 예술품을 얼마쯤 더듬어 보았지만, 이 묵묵한 돌부처처럼 나에게 감흥을 주고 법열(法悅)을 자아낸 것은 드물었다.

나는 마치 일생을 두고 그리고 그리던 고운님(보살님이시여! 그릇된 말씨의 모독(冒瀆)을 용서하사이다. 보살님이 내 가슴에 붙여 주신 맑은 불길은 이런 모독쯤은 태우고야 말

았습니다.)을 만난 것처럼 나는 그 팔뚝을 만지고, 손을 쓰다듬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어린 듯 취한 듯, 언제까지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벽 위에는 둘러 가며 좌우 각각 다섯 곳에 불좌(佛座)를 만들었고, 왼편엔 네 분 보살님 오른편엔 두 분 보살님과 지장보살(地藏菩薩)과 유마거사(維摩居士)의 좌상(座像)을 모시었는데 그 솜씨도 또한 심상치 않았다.

석굴암의 옛 이름은 석불사(石佛寺)로, 신라 경덕왕 때에 이룩한 절이라 한다. 석굴암이라 함은 곧 돌을 파내어 절을 지은 것이며, 부처님을 새기고 모신 것도 모두 돌이요, 땅바닥도 돌이요, 천장도 물론 돌이다. 굴의 구조는 동남으로 향하여 평면 원형(平面圓形)으로 좌우 지름이 22 척(尺) 6 촌(寸), 앞뒤 지름이 11 척 7 촌 2 분(分), 들어가는데 너비 11 척 1 촌 5 분, 옆 벽의 두께 약 9 척이라 한다. 1천여 년의 바람과 비에 귀중한 옛 솜씨가 더러 이지러지고 무너진 것은 아깝기 한량없지마는, 15년 전에 크게 수리한 탓으로 도리어 옛 것과 이제 것을 분간하기 어렵게 된 것은 더욱 한할 노릇이다.

그러나 앞문은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 속은 별로 수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아있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님 네들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나는 신품이 아님이 없다는 것은 좀된 붓 끝이 적이 꼬적거린 바로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 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르러서는 정말 찬란하다 할 밖에 없다. 하늘 모양으로 궁륭상(穹窿狀)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 놓은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록 공교하고 핑결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낳아 낸 것은 모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

굴 문을 나서니, 밖에는仙境(仙境)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흰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띄엄띄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 안개에 싸이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러낸 어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곱실곱실 움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살이 동실동실 동해를 떠나오는 광경은 정말仙境 중에도仙境이라 하나, 화식(火食) 먹는 나 같은 속인(俗人)엔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 십일면관음보살상

## 저자소개

현진건(玄鎮健, 1900~1943):

소설가·언론인. 호는 빙허(憑虛). 1920 년 『개벽(開辟)』에 「희생화(犧牲花)」를 발표함으로써 문필 활동을 시작하여 「빈처(貧妻)」로 문명을 얻었다. 장편·단편 20 여 편과 7 편의 번역소설, 그리고 여러 편의 수필과 비평문 등을 남겼다.

그의 작품 경향은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사실주의 계열로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전적 신변소설(「빈처」, 「술 권하는 사회」), 하층민과 민족적 현실에 눈을 돌린 소설(「조선의 얼굴」, 「운수 좋은 날」), 1930 년대의 장편소설과 역사소설(「무영탑」, 「흑치상지(黑齒常之)」)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어휘와 구

찌푸리다(동) 紧蹙, 皱眉; (天气) 阴沉  
 마치다(동) 结束, 做完, 完成  
 부여잡고 울다(동사구) 抓着哭  
 차디차다(형) 冰冷  
 기약없다(형) 遥遥无期  
 시방(명/부) 现在  
 촉촉이(부) 湿漉漉地  
 바빠(부) 赶快, 急速地  
 울창한 송림(명사구) 葱郁的松树林  
 조마조마하다(형) 提心吊胆, 忐忑不安  
 범상치 않다(형) 不平常, 不寻常  
 몸을 던지다(동사구) 投身  
 어리다(동) 噙; 凝结, 凝聚; 晃动  
 귓가를 스치다(동사구) 掠过耳畔  
 대패로 밀다(동사구) 用刨子推  
 아련히(부) (记忆) 模糊  
 발코니(명) 凉台, 阳台  
 찰나(명) 刹那  
 아치(명) 松枝门, 彩虹门, 拱形门  
 감개를 마지않다(동사구) 连连感慨  
 연못을 파다(동사구) 挖荷花池  
 모닥불(명) 篝火, 营火

러득하다(동) 体会, 领悟, 领会  
 얼굴을 내어 밀다(동사구) 露出脸  
 우뚝우뚝(부) 高耸的样子  
 잡목(명) 杂木  
 연꽃이 만발하다(절) 荷花盛开  
 어우러지다(동) 协调, 和谐  
 으리으리하다(형) 富丽堂皇  
 역을 감다(동사구) 野浴  
 베니스(명) 威尼斯  
 흘뜨다(동) 瞪眼  
 광경이 선하다(절) 历历在目  
 흠쭈하다(형) 细长, 瘦长, 空瘪  
 만지다(동) 触摸, 抚摸, 摆弄  
 불심을 불러일으키다(동사구) 使人发善心  
 두들기다(동) 狠打, 乱打  
 벌어진 어깨(명사구) 宽宽的肩膀  
 육중하다(형) 笨重  
 능률하다(형) 豪迈, 凛凛, 神采奕奕  
 의정하다(형) 堂堂正正, 庄重  
 토실토실하다(형) 胖乎乎的  
 공교롭다(형) 碰巧, 凑巧, 正好  
 고금(명) 古今

잔손질(명) 零碎活儿, 杂活儿  
 심상치 않다(형) 不寻常  
 떠받치다(동) 支撑  
 더러(부) 多少, 一些; 有时候  
 병풍을 겹쳐놓다(동사구) 层峦叠嶂  
 능란하다(형) 熟练, 精湛, 娴熟  
 이지러지다(동) 残缺

점령(명) 占领, 占据, 攻占  
 목을 놓아 울다(동사구) 放声大哭  
 띄엄띄엄(부) 稀疏  
 거창하다(형) 宏伟, 巨大  
 곰실곰실(부) 缓缓地, 轻轻地, 蠕动貌  
 재상(명) 宰相

## 문법과 표현

1) 숨기고 내어놓지 않아 사실 진상을 알 길이 없다.

- 길

주로 ‘-ㄴ/을 + 길’의 구성으로 쓰여 방법이나 수단을 뜻한다.

예:

그 일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没有解决那个问题的办法。

사표를 내고 나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提出辞职以后, 生存成了问题。

도박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올 길이 없어요.

深陷赌博的泥潭, 难以自拔。

그 작품에서 받은 감명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从那部作品得到的感动难以言表。

2) 언제까지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다.

- (이)고…… - (이)고

‘-고’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조사 ‘에, 에게, 서, 에서, 께, 께서’ 등의 뒤에 붙어서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이다. 받침 있는 체언 뒤에는 ‘-이고’가 붙는다. 나열되는 사물이 똑같이 선택됨을 나타내며, 바로 뒤에 ‘간에’가 오기도 한다.

예:

그 사람은 염치고 체면이고 없는 사람이다.

他是寡廉鲜耻的人。

언제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想找个时间和你说来着。

선생님께고 어느 분께고 다 말씀드려라.